

여성파워

이 동 식 / KBS-ITV 편집주간



이 동 식
KBS-ITV 편집주간

이제 다시 무슨 뉴스가 되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러나 그래도 뉴스는 뉴스다. 그동안 남성들만이 독차지하던 채용시험, 그 중에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올해 여성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외무고시를 보자. 그동안 중국과 영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을 보아도 여성은 만나기 어려웠다. 내 기억으로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2002년 외무고시 합격자중 여성의 비율은 45.7%였다. 거의 절반이다. 11년 전인 1991년에 49명 중 1명이 돼 2%였던 합격률이 94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해 99년 30%, 2001년 36.7%에 이어 올해는 드디어 동등한 수준인 45.7%까지 높아진 것이다.

행정고시도 마찬가지다. 90년 최종합격자 173명 중 여성은 3명이었으나 12년이 지난 2002년에는 최종합격자 257명중 73명이 여성이다.

사법고시는 더 화제다. 2차 전체 합격자가 999명가운데 여성합격자가 239명이나 된다. 특히 수석합격자는 이미선(23. 서울대 4년)씨, 최연소 합격자는 안미령(21. 서울대 3년)씨,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대 출신의 박춘희(48)씨로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그런 가운데 현직 경찰관인 남편이 사시를 준비하자 뒷바라지를 하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한 27살 김지연 씨가 남편과 함께 합격했는데, 그 자신 법학 전공도 아닌 인문 학도였으면서도 사시를 합격해 2002년 연말을 장식한 여성이 됐다. 어느 신문 만화는 이 여성이 결혼질 하다가 합격했는데, 당초부터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느냐며 놀라는 표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위직 만이 아니라 7급과 9급 등 하위직에서도 여성진출이 두드러졌다. 7급공채 여성합격률은 25%, 9급공채는 48.6%에 달했다. 예전에 관공서에 가면 민원부서 앞 자리에는 일용직 여성들이 있고 남성들은 뒷자리에 앉아 위치를 뒤로 기울이며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물론 아주 옛날 이야기임), 이제는 남성과 여성들이 나란히 앉



아있는 모습이 당연시 될 것이다.

이렇게 여성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여성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가. 예전에는 여성은 대학을 졸업해도 남자를 잘 만나 시집을 잘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찾기 위해 남자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또 한가지,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에게 주는 가산제도가 워헌이라고 폐지된 것도 작용을 한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남자들이 불만이다. 우리는 군대가서 3년이나 '썩고' 오는데, 똑 같이 대우하면 남자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누구는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느냐, 국가가 데려가 놓고 우대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제 남자들은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이란 불멘 주장이다.

여성 합격자들이 늘다보니 문제도 생기고 있다. 하위직의 일부 직종의 경우 최근 들어 여성비율이 70%를 넘는 곳도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내년 부터는 남녀 어느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채용인원에 비해 승진과 보직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여성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이를 보여준다. 그것은 능력에 따른 현상이라고도 남성들은 주장하겠지만 아직도 승진을 결정하는 남성들이 여성의 승진을 달갑게 보지 않는 현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여성들이 늘어나는 만큼 여성들도 남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직장문화를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남성들의 경계심과 반발을 불러오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남성위주의, 상명하복의, 서열위주의 사고방식에, 여성에 대해 동등한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집안의 여성의 역할을 여전히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할 것이다.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PPFM